

사업비 늘어 정부 타당성 재조사 불가피...설계용역 중단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들고 돌아 8년만에 제자리

광주시 비용 절감으론 한계...건설 방식 모노레일로 변경 가능성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사업 추진 8년 만에 또 다시 원점 재검토 위기에 놓였다. 최소한 23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줄여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지난 2008년 4월 광주지하철 1호선이 전면 개통된 뒤 곧바로 추진됐다. 광주시는 민선 5기인 박광태 시장 시절 2호선 건설 방법을 저렴한 지상고가(地上高架)로 정했다. 그리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2009년에 마쳤다. 하지만, 고가방식이 도심 미관을 해치고 노선 인근지역의 일조권 침해 발생 등의 민원이 우려되면서 민선 6기 강운태 광주시장 시절, 논란 끝에 2013년 저심도(低深度)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기본설계 용역이 95%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비가 이미 정부 예상 승인액의 15%(최대 3000억원)를 초과하자 시는 설계 용역을 중단시킨 뒤 원

가절감에 나섰다. 사업비 증액도 문제지만, 푸른길 공무원이나 백운고가, 차량 증량 등 선별적으로 도입할 예산도 최소한 1200억원에 달한다.

오는 20일 경제성 검토 용역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아무리 줄여봐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1000억~1500억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800억원에서 최대 1300억원 정도를 더 절감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위해 저심도 보다 저렴한 모노레일 등의 방식이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건설방법이 재검토돼 또 다시 방식이 바뀌게 된다면 민선 5기(박광태 시장)와 민선 6기(강운태 시장)에 이어 세번째로 건설방식이 변경되게 된다. 사실상 2호선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8년 만에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이틀 남겨둔 1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연합 양당 지도부가 국회 의원식당에서 '4+4 회동'을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여야 농어촌 의원들이 '농어촌 지방 죽이는 선거구 획정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참석자들에게 "농어촌 지방 선거구 꼭 현재 상태로 유지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선거구 획정 '4+4 회동' 합의 실패

법정시한 사실상 못지켜...의원 정수 2~3석 증원 등 검토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확정 법정시한이 11일을 기점으로 이를 앞두고 다가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담판짓기 위해 10일과 11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하는 '4+4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쟁점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12일 최종 합의에 나선다.

여야가 11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안 확정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졌다. 12일 여야 합의가 가까스로 이뤄지더라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로 안을 넘겨서 최종안을 정리하고 다시 국회로 넘겨받아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계속 대립, 연내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년 4월 20대 총선 준비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이를 연속 성과를 내지 못하자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양당 대표실 접거 농성에 돌입했다. 전남의 김승남, 신정훈, 황주홍 의원과 전북의 유성엽, 강동원, 박민수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표를 면담, 호남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여야는 11일까지 진행한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지역구를 250개 초반으로 정하고 지역구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 정수(300명)를 2~3석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말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가 250개 초반이 될 경우 예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격차 2대 1 결정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던 지역구 26곳 가운데 5곳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수가 현행 246석으로 확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별 인구격차(2대 1)를 적용했을 때 인구 하한 기준은 13만9473명이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총 26개였다.

하지만, 지역구수를 250개 초반(250~255석)으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5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 기준 미달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들 5개 선거구는 ▲장흥·강진·영암(새정치연합 황주홍) ▲부산 중·동구(무소속 정의화) ▲강원 속초·고성·양양(새누리당 정문헌) ▲충북 보은·옥천·영동(새누리당 박덕흠) ▲경남 산청·함양·거창(새누리당 신성범) 등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충북가 일본여행

무안(광주) ↔ 기타큐슈 직항

2015년 10월 9일(금)~12월28일(월)

패턴 : 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출발

스케줄 : 무안(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항공기 : 스텔라워리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비행기로 (월) 799,000원에 관다!

북큐슈/야마구치 3일 (목)성인/599,000원 어린이/569,000원 (토)성인/679,000원 어린이/649,000원

기타큐슈/나가사키/하우스템보스 3일 (목)729,000원 (토)769,000원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3일 (목)679,000원 (토)749,000원

골프 야마구치 조요C.C/아사C.C 3일(36홀)/4일(54홀) (월)(목)(토)779,000원

벳부/오이타 올레길 [3일] [4일] (목)(토)499,000원 ~ 769,000원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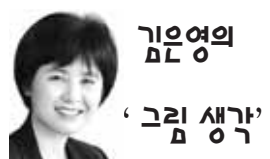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 234-3222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이룰 수 없는 꿈 향한 도전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135) 하늘을 걷는 남자



안 파브르 작 '구름을 재는 남자'

한 시간을 달콤하게 보내려면 아이스크림을,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한편의 영화를, 일 주일을 산뜻하게 누리려면 이발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다. 내게 영화 한편은, 어떤 경우엔 한 달 이상 그 감흥이 지속되기도 한다. 최근 개봉한 영화 '하늘을 걷는 남자'(감독·로버트 저메키스)가 그럴 것 같다. 무모하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을 향한 한 남자의 끝없는 도전을 보면서 관람 내내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꿈도 열 정도 없이 작은 일에만 속상해하면서 현실에 순응하고 안주해온 나의 소극적인 모습도 되돌아 보게 했다.

영화 속 주인공 펠리페 페릿(조셉 고든 레번)은 지금은 사라진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사이 42미터를 맞출로 연결하여 45분 동안 8번 왕복한 실화 속 인물이기도 하다. 어릴 때 새처럼 하늘을 나는 게 꿈이었던 주인공은 서커스단의 줄타기에 매료돼 노트르담 성당 등 높은 건물 사이를 외줄로 건너면서 불가능한 꿈에 꾸준히 도전해왔고 스스로 행위예술가라 불렀다.

412미터 고공을 걷기 위해 하늘 높이를 재곤 했던 영화 속 주인공은, 몇 년 전 일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에서 만난 벨기에 출신 안 파브르(1958~)의 조각 작품 '구름을 재는 남자'(1999년 작)와 부위가 흡사하다. 안 파브

르는 우리에게 '파브르 곤충기'의 저자로 친숙한 앙리 파브르(1823~1915)의 증손자로 유명하다. 안 파브르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연의 순환원리와 인간 삶의 덧없음을 작품의 핵심 개념으로 삼아왔는데 현대미술 뿐 아니라 안무가, 무대미술가, 연극연출가 등 전방위적 예술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감옥에서 조류학자가 된 죄수의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업한 '구름을 재는 남자'는 공중을 더듬으면서 하늘을 향해 자신의 꿈을 새기려는 한 남자의 모습이다. 어쩌면 우리의 꿈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변화무쌍하게 모였다는 생각이 든다. 저 하늘의 별처럼 끝없이 열망하지만 잡을 수 없는.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